

2020년 안동교구의 기도

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,
저희는 교구설정 50주년을 보내며
이 땅에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기 위한
저희의 다짐을 봉헌하였습니다.

이제 저희 교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새 출발하며
그 다짐들을 실천함으로써
이 땅에 복음적인 삶의 가치와
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려고 합니다.

저희의 다짐과 노력을 어여삐 보시고 축복하시어
저희에게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의
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고,
이 땅에는 당신의 나라가 날로 자라나게 하소서.

- +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 마리아님,
- ◎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.

- + 복자 박상근 마티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,
- ◎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. 아멘.

다짐 실천을 위한 기도

(이 기도를 외워 다짐 실천 전에 바칩니다.)

하느님 아버지,
이 땅에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기 위한
저희의 다짐과 실천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소서. 아멘.

2019. 11. 24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
천주교안동교구장 인준

2020년

교구 50주년 다짐 실천의 해

“기쁨 넘치는
하느님 나라를 일군다!”



천주교안동교구
CATHOLIC DIOCESE OF ANDONG

평신도의 다짐

“우리 평신도는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며
교구사명선언문을 새롭게 깨닫고,
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.

- “기쁘고 멋떳하게” 살기 위하여 신앙의 성숙을 위한 교육과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.
- “열린 마음으로”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다.
- “소박한 삶”을 생활 속 기본질서 지키기로 실천한다.
- “생명을 소중히 여기며”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.
- “나눔과 섬김”的 자세로 단체에 가입, 봉사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일구는 데 앞장선다.

수도자의 다짐

“우리는 수도자로서,
안동교구의 사람과 자연 안에서
빈 마음으로 달름을 받아들이며
일상의 수행을 통하여 생태보존에 힘쓰며,
자유로운 가난의 삶으로
하느님 나라의 표징을 드러낸다.”

사제의 다짐

“우리는 안동교구 사제로서 교구사명선언문의 정신에 따라,

- 겸손하고 검소하게 산다.
-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한다.
- 친교와 감사로 사랑을 실천한다.
- 사제 직무에 충실한다.”

안동교구 하느님 백성의 다짐



2020 공통 실천사항

① 친교를 위하여 : “기도한다”

“형제애를 바탕으로 서로의
삶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관계”
(사목교서 제6항)

- 평신도, 수도자, 사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.

② 하느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: “참여한다”

“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…
실천적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”
(사목교서 제8항)

- 본당/교구 활동, 사회발전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합시다.

③ 기쁨 넘치는 삶을 위해 : “지금! 여기에서!”

“신앙의 기쁨이 … 되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.”
(사목교서 제8항 / 교황 프란치스코)

- 각자의 다짐들을 “지금 여기”에서 살아가는 “실천하는 신앙인”이 됩시다.



• 작가: 소림 김정자 마리스텔라
(1934~, 서울대교구 명동성당)
• 작품명: 산상강론
• 세계미술협회회원, 가톨릭미술가회원
• 소림(昭林): ‘밝은 숲에는 많은 생명이 산다’